“지역 발전 내가 적임”…민주, 공천 경쟁 뜨겁다

※ 6·1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일보는 이날부터 광주 5개 자치단체장,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과 이들의 공약 등을 총 점검한다.

본선 같은 경선 민주 최종 후보 관심

김병내

김용집

박기수

강현구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김용집·박기수 민주 경선 국민의힘 강현구 예비후보 출사표

광주 남구청장 선거는 김병내 현 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하고,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기수 전 민주당 대선 정무특보단 광주공동본부장이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청장은 10여년간 강운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뒤 광주시청 직소민원실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을 넘나든 이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력을 증명해냈고, 중앙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에 부족함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임기 중 지역 난제였던 백운고가 철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백운광장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한편 고가도로를 철거한 자리에 푸드스트리트존 조성 사업을 벌이며 남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광주·전남 최연소 자치단체장 기록을 가진 김 청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올해도 여전히 40대라는 점이 강점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오랜 시간 광역행정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남구에 뿌리 깊숙이 내린 정치력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대외적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 촉구’ 성명·건의문 발표를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냈고, 안정적인 의회 경영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 의장으로 재직하며 홍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지역주민과의 소통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 특별위원장,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박기수 전 민주당 대선 정무특보단 광주공동본부장은 TBN광주교통방송본부과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 남구청소년수련관 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 예비후보는 “남구에서 이재명표 정책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바로 세워 공정과 정의의 남구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그는 ▲남구민 기본소득 연 20만원 지급 ▲ITS(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 등 11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안병하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등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도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현구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소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합당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인 그는 “최근 광주에 발생한 각종 사고 등을 경험하며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구청을 진두지휘해야 안전한 광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남구를 만들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지회장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장-부구청장 출신 후보 맞대결

광주 북구청장

민주 문인 현청장 경선 없이 본선행 국민의힘 강백룡 행정경험 풍부

문인

강백룡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인 현 구청장과 북구청에서 부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와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문인 구청장은 단수 공천으로, 경선 없이 본선으로 곧바로 직행한다. 광주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점에서 경선만 피한 것만으로도 문 구청장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문 구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광주시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청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행정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등에서 중앙행정을 경험하면서 쌓은 관록이 재임 기간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서 선전하는데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북구 내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데 앞장서면서 북구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다수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 구청장은 재임 기간 대통령상 6번, 국무총리상 6번을 수상하면서 이른바 ‘6-6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강백룡 전 광주 북구 부구청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우면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된다.

강 전 부구청장은 건축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광주 북구 부구청장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정한나라 광주시위원장을 역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호남정치 1번지’…경선부터 치열

강신기

김성환

임택

진선기

광주 동구청장

민주 임택·강신기·김성환·진선기 후보 경선 거쳐 최종후보 선출 양혜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양혜령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뜨겁고, 국민의힘도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재선에 나서는 임택 현 동구청장과 강신기 전 광주시기획조정실장, 김성환 전 동구청장, 진선기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등 4명이 후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동구의원, 광주시의원 등을 지내며 쌓은 중앙 정치와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행·의정 경력과, 현역 프리미엄,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 7기 임 청장의 가장 큰 성과는 ‘낙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활발한 도시재생과 인구 10만명 회복을 통한 ‘살고 싶은 행복 동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선을 통해 광주의 중심구로 동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에 맞서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지방선거 재도전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나섰다가 현 임택 청장에게 패했다. 이후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김 전 청장은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등 25년간 중앙에서 공직에 몸담았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진선기 국가균형발전위원도 민주당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재선 시의원인 진 위원은 일찌감치 동구에 둥지를 틀고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해 왔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서 특보단 단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보와 국민참여플렛폼 광주공동본부장,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지역발전전략특별위원장, 광주동남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조직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임택 현 청장에게 고배를 마신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도 재도전에 나선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실장은 중앙부처와 지방관가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2012여수엑스포 성공개최, 전자정부에 구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광주시 기획관,경제산업국장, 시민안전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았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양혜령 전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3·9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 광주시 선대본부 총괄여성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일부 민주당원을 설득해 윤 후보 지지를 이끌고 광주 두자릿수 득표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뒤 탈당했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갈아타고 여성 첫 광주 동구청장을 꿈꾸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